

투데이 칼럼

북한의 수령 통치술

김정은 위원장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 속에서 도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고통 받고 있는 민심은 어떻게 다스릴까 궁금하다. 김 위원장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자신을 '수령' 또는 '아버지, 아버지'로서 상징을 부여하는 이상화 작업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올 들어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이상화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흔도 안 된 나이의 김 위원장을 위대한 수령, 인민의 아버지로 내세우는 선전선동 사업이 매우 활발하다.

올 1월 1일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 이름 앞에 '위대한 수령'이란 호칭을 붙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모든 영예와 승리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렸습시다."라고 했다.

2020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본격적으로 사용된 '수령' 호칭은 2021년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는 일곱 달 만에 지난해 사용 횟수를 넘어섰다. '위대한 아버지' 같은 수식어 사용도 늘고 있다. 20대에 등장한 김정은이 10년 넘게 정치를 해왔고 그동안 경

험했던 것들을 부각하는데도 나이에 맞는 위치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필요할 것이고 수령과 일치화 된 여러 가지 호칭 중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북한에서 '수령'은, 지도자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위대한 수령'은 김일성을 칭송하는 호칭으로 여겨진다. 김일성은 해방 직후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통해 배급을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냈다. 6.25 전쟁기와 1960년대를 거쳐 반대파를 숙청한 뒤 1970년대 유일사상 체계를 내세우며 '수령'을 법제화하고 신격화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 초기 '수령 김일성'을 활용해 승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첫 육성 연설에서도 '수령'을 부각했다.

그러나 2018년, 비핵화 카드를 들고 국제무대로 나오면서 '수령'의 신격화나 미화 대신 보통 국가, 정상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심지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열린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서도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까지 보냈다. 하지만 북미는 교착 상태를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경제난까지 가중되자 다시 '수령'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눈물의 연설로 대중 앞에 서며 어려움 속에 함께하는 '수령'의 모습을 지 보여준다.

최근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인도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신하고 희생하는 '수령' 이미지를 띄우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수령'과 함께 주목할 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라는 호칭이다. 새해 첫날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에 나선 김정은의 호칭에 관영 매체가 앞장섰다.

관영 매체는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라며 김 위원장을 '아버지'라 칭했다. 참가자들이 '아버지 원수님'이라고 외치는 모습도 방영됐다.

그 뒤 평양 서포지쿠 착공식엔 딸 김주애를 동행해 '아버지' 김정은을 부각했다. 1984년생으로 만 40도 안 된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수령'이라는 호칭을 통해 강력한 인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장마당 세대가 등장하고 휴대전화도 일상화하는 등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지금도 '수령'은 잘 작동하고 있을지 관심거리다. 고난의 행군기를 겪었고 여전히 열악한 경제 속에서 살아야 하는 청년 세대로서, 통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불혹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 '아버지 수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한다. 수령의 지위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도 공식화하지 못했다. '수령'의 지위를 차지해 할 아버지 김일성의 후예에 기대지 않고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독자제언

최근 연예인 등이 마약 혐의로 시끄러운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는 청소년 마약 범죄가 드라마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 각종 미디어에서는 마약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며 구매방법까지 자세히 보도하고 있어 청소년들에 호기심을 자극하고 경각심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펜타닐 패치를 하는 모습이 여과 없

청소년 마약범죄 심각... 예방만이 답이다

이 나와 모방범죄로 이어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펜타닐 패치'는 시중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마약류로 알려져 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로 진통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미국에서는 펜타닐에 취한 젊은이들이 쯤비처럼 걸어 다니는 영상이 퍼져 '쯤비마약'으로 불리

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류가 됐다. 이 펜타닐은 금단증상이 심해 한 번 접하고 나면 꾸준히 찾게 되는 악순환 반복하게 된다. 처음에는 재미로 접했다가 마약을 하지 않으면 뇌의 신호체계에 이상이 생겨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는 것이다.

마약은 한번 중독이 되면 평생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김대근 교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 청소년 마약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범죄예방교육과 더불어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 가정에서도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교육하여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미디어 또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를 지양하고 청소년 마약 예방에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마약은 한번 중독이 되면 평생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김대근 교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설

어느 공공기관의 비위 행위

국내 어느 공공기관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여직원에 대한 상습적 성희롱 그리고 상관 폭행까지 벌어졌다. 교육부 산하에 설립된 어느 연구기관에서 최근 3년 간 벌어진 일들이다.

고전문헌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소속 A씨는 2020년부터 한 업체로부터 전산용품을 구매했다. 해당 업체는 명의상 A씨의 인척 회사였고 이마저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 과정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을 챙겼다.

지난해 A씨에 대해 한 차례 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유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아닌 회계 처리 단순 지연이었다. A씨가 불복 비용 집행에 담당할 탓에, 공금이 과다 청구되고 결재 문서가 위조된 사실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일용직 여성 근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됐

다. 그는 "세상에서 문화와 여자가 제일 좋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수시로 했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묘사하는 시와 노래 가사를 만들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한 연구원은 출근 시간 사무실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상관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 같은 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이곳에서 조치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조치만 7건에 달한다. 연구기관 측은 특정 시기에 징계 처분이 집중된 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감사 전문 인력을 배치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공기관이라면 기강 해이를 의심케 하는 비위 행위다. 그러나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벌인 건 최근 10년 간 2012년과 지난해 고작 두 차례가 전부였다.

김제 출신 백영훈 박사 별세

김제 출신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폭자로 활약했던 백영훈(白永勳) 박사가 최근 93세로 별세했다.

1930년 김제시 월촌면에서 태어난 그는 고려대 상대를 졸업한 뒤 국방장학생에 뽑혀 1956년 서독으로 유학을 떠났다.

1959년부터 중앙대 상대 교수로 강단에 섰다. 당시 5·16 혁명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경제 협력을 거절하자 대신 서독에서 차관을 받으려고 할 때였다.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라"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로 고인이 지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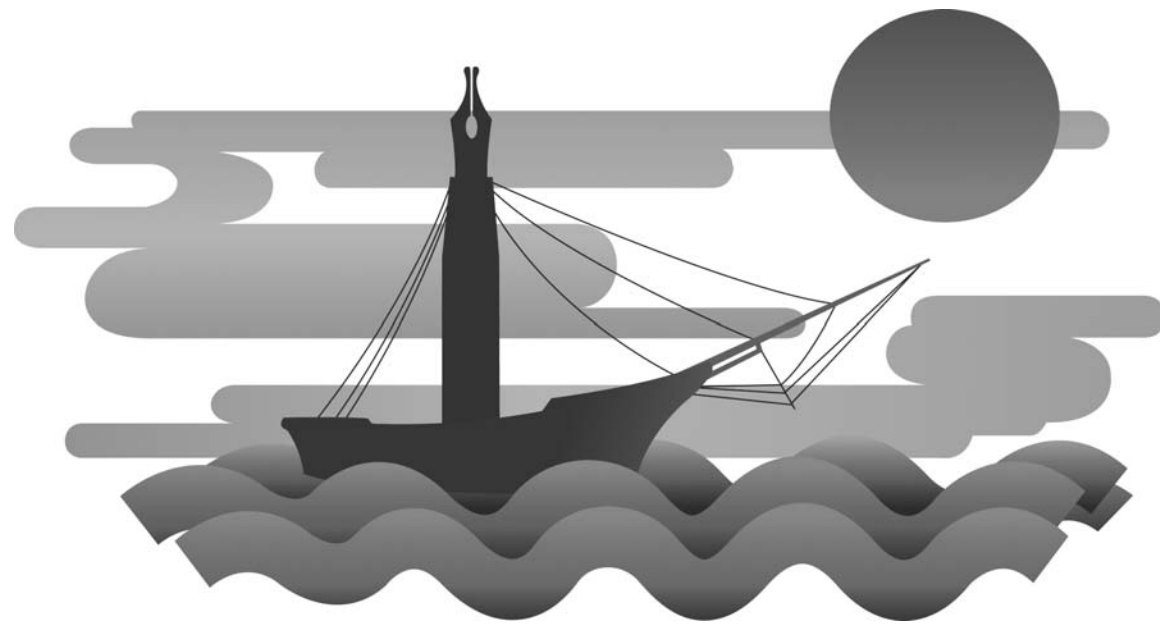
백 교수는 1961년 말 서독 경제 협력단에 포함됐다. 고인은 유학 시절 지도교수를 만나 서독 경제장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마침내 경제차관을 만나 3천만 달러 상업 차관 약속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지급을 보증해줄 서

독 은행이 없었다. 일행이 귀국한 뒤 혼자 서독에 남아 고민하던 고인에게 유학 시절 지인인 서독 노동부 과장이 "5천명을 독일 탄광에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를 계기로 광부 3천명과 간호사 2천명을 보내는 대신 이들의 월급을 담보로 서독이 차관을 제공한다는 방안이 성사됐다. 1963년 12월 광부 300명이 간 것을 시작으로 광부·간호사 파견이 늘어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1월 서독 정부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 절반이 굶어 죽고 있다"며 울먹이 자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가 손을 잡으며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공업화 발전론", "한국 경제의 도전",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한국 자본주의 제3의 혁명", "대한민국에 고함", "경제, 4단블 시대의 로드맵", "위대한 한국 시대는 온다" 등 저서를 남겼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